

오차대에서의 한 학기

계명대학교

박민주

g2590004

4월은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없을 만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5월이 되자 예상보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고,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그러다 6월이 되어서야 이 생활이 조금씩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7월에는 마침내 ‘이제는 정말 이곳에 정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아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하다.

한 학기만 유학을 온 학생이라면 3개월이 지난 때는 시험, 레포트, 귀국 준비 등으로 바쁠 시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1년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3개월이 지난 때야말로 진짜 유학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하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본래의 자신처럼 지내면 된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것’ 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주변 유학생들이 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일본인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비교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나’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속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왔는지 명확히 해야겠다’ 는 다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점차 강박이 되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일본에 온 진짜 이유는, 나 스스로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정답 없는 탐험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지냈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 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만약 1년 동안 머무를 계획이고 회화에 자신이 있다면, 꼭 일본의 서클 활동에 참여해 보길 권한다. 일본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느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는 고마운 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거의 모든 수업을 쉬었지만, 니시자카 선생님의 ‘제2언어 교수법 연습 I’ 수업만큼은 빠짐없이 출석했다. 이 수업을 통해 일본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나와 맞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 고

생각했지만, 그 수업은 그저 재밌어서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내가 있었다.
니시자카 선생님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